

영광 송(Doxology)<sup>1)</sup>

롬 11:33-36

이 설교문을 통해 앞서 언급된 주장들에 대해 보충적인 제시를 하려고 했다. 특히 설교에 있어서 움직임과 이미지, 구체적인 삶의 상황들, 그리고 청중의 동일시와 참여를 설교에서 어떻게 다룰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예시로서 이 설교를 작성하였다. 이

1) 역주/ 본 설교는 귀납적 설교의 대표적인 설교문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내용의 난해함 때문에 다소 어려운 설교로 평가받고 있다. 설교를 읽을 때 그러한 난해함이 느껴지는 것은 그의 설교가 메타포적인 기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아이디어’ (Idea)와 ‘영광송’ (Doxology)이 애완용 동물의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신학적이고 설교학적인 경향들을 설명하는 구조까지 담고 있기 때문에 더욱 난해하게 느껴진다. 여기에서 ‘아이디어’로 표현되는 것은 그 동안 신학적인 연구의 여정에서 남의 생각들과 신학적인 교리(dogma)에 붙잡혀 살았으나, 나중에 그것은 이제 모든 것에서 영광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음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크래독은 이 설교에서 삶의 다양한 경험과 내용들을 통해 ‘영광송’이 왜 필요한 것인지를 암시적이고, 메타포적으로 설명해 가고 있다. 또한 이러한 특성은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로마서의 구조 속에서도 이해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영광송’을 애완용 개 이름으로 이해하면서 기본적인 골격은 우리 삶의 어느 부분에서나 — 식탁에서도,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고통의 현장인 병원에서도, 가족들의 휴가에서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의 현장에서도 — 빠져서는 안 될 것이 영광의 찬송임을 메타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런 구조를 이해하면서 이 설교문을 읽어갈 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설교문을 읽는 분들은 본문의 정신과 형태에 적합한 메시지의 정신과 형태를 창출하려는 시도에 특히 주의해 보기를 바란다. 로마서의 본문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광송(Doxology)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신학적 논의의 한중간에서 찬양이 터져나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바, 설교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했다. 이러한 본문을 연역적인 구조의 삼단 논법이나 논증, 혹은 권면이나 어떤 명제에 대한 변호로 변환하는 것은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이 문학적이고 해석학적이며, 심미적이고 실제적인 위반을 행하는 것이 될 것이다. 영광의 찬송은 영광의 찬송으로, 네러티브는 네러티브로, 비유는 비유로 전달하자.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설교는 성경적이 되어야 한다.

그 해 가을, 낮의 길이는 점점 짧아지고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베란다에 나가 혼자 시간을 보내고는 했습니다. 그곳에 있다 보면 형클어지고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는 데는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그러한 몇 분의 시간이 정말로 필요했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은 이러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날 저녁은 다른 날과 다른 아주 특별한 저녁이었습니다. 그곳에 앉아 제가 계획했던 하루와 제가 살아온 하루 사이에 너무나 큰 간격이 있음을 기억하며 가슴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어두움이 땅에 덮이면서 저의 생각과 마음 속에도 그것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과 같은 깊은 어두움 속에서 있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아이디어’ (Idea)가 저에게 온 것은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날 ‘아이디어’를 기쁨으로 맞이할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상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었고, 그렇다고 오래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아이디어'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저녁 '아이디어'는 또 찾아왔습니다. 아이디어가 돌아가기 전 저는 마음의 안정을 찾으면서 함께 놀 수 있을 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은 '아이디어'와 함께 놀아주기도 하고, 또 먹이도 주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 말할 나위도 없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저는 '아이디어'에게 점점 애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디어'가 혹시 이웃집 사람 누군가의 개인데, 내가 지금 남의 것을 안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웃집을 찾아다니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 개가 당신의 '아이디어' 입니까?”

“아니오, 우리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디어'를 우리 것으로 주장하게 되었고 주인의 권리로 새 이름을 붙여 주었는데, '영광송'(Doxology)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광송을 가족이 함께 하는 저녁 식탁에 데리고 갔습니다. 저녁식사 시간은 가족들이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가끔 모두들 너무 조용하면 저는 묻고는 하지요.

“오늘 일어난 일 가운데 가장 끔찍했던 일은 무엇이었어?”

아들 잔이 대답했습니다.

“아침 8시 30분, 수업 시작종이 울린 것이었지요.”

“그럼 오늘 가장 좋았던 일은 무엇이었니?”

“3시 30분에 수업을 끝내는 종이 울린 것이지요.”

로라, 잔, 네티, 그리고 저, 이렇게 우리 식구들은 그날 있었던 일

들을 함께 나누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저녁 식사 시간이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식구들은 영광송이 식탁에 함께 하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영광송을 데리고 정기적으로 있는 볼일을 위해 다운타운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늘 정례적으로 주어지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부지런히 훑아먹고 있었는데, 열심히 혀를 놀리고 있었지만 아이스크림이 녹는 속도가 더 빨라서 아이의 팔꿈치에까지 녹아 내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웃었습니다. 또한 보석상 진열창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한 떠돌이 방랑자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저 걸인은 지금 과거의 좋았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앞으로 좋은 날이 올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인가?' 그를 보면서 우리는 의아해 했습니다. 우리는 엄지손가락을 조끼 속에 넣고 값비싼 판 유리창 앞에서 있는 은행 간부의 사진을 보면서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마치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사람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바람이 세계 불어오는 야외 매점에서 여인들이 여러 가지 물건을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는 바람에 날리는 치마를 잡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웃었습니다. 다운타운에 영광송과 함께 간 것은 매우 잘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또한 성 메리 병원에 잠시 들러 베틀을 찾아보았습니다. 베틀은 암에 걸려 죽어 가고 있는 환자였기에 저는 영광송을 차 안에 두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광송은 꺾꺾대며 난리를 쳤습니다. 마치 자기도 함께 병실에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듯했습니다. 암으로 죽어 가고 있는 환자에게 영광송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적절한 행동

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결국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광송을 차 안에 두고 차문을 잠갔습니다.

베티는 깨어 있었고 저를 보더니 무척 반가워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거북스러운 죽음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죽음에 관해 말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알아요. 그러나 저는 죽음에 대해서 이미 마음이 정리되었어요. 하나님은 그 동안 내게 수많은 복을 주셔서 좋은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게 하였고, 참 많은 행복을 맛보게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죽는 것을 원치는 않지만 저는 죽는다고 해서 절대 원망하지는 않아요.”

베티 방을 떠나기 전에 오히려 그녀가 기도를 했습니다. 차에 돌아오자 영광송은 그렇게 말하는 듯했습니다.

“저도 베티 입원실에 갔더라면 좋을 뻔했지요?”

“그래, 미안하다! 내가 미처 그렇게 생각을 못했어.”

물론 영광송은 우리 가족의 휴가에도 같이 갔습니다. 금년 여름에 우리는 멕시코만 어느 해변가로 휴가를 갔었는데, 너무나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아침 먹기 전에 수영을 하고 오후에는 낮잠을 자고, 저녁이면 조개껍질을 주우러 해변가를 산책했습니다. 영광송은 모래 언덕에 있는 젊은이들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떤 노인 은 모래에 이미 반쯤 문힌 몸에 계속해서 모래를 올려놓으면서 짐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아내인 듯한 분은 바비큐 하듯이 몸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일광욕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송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무척 좋아했습니다. 밀려오는 파도 속을 거니는 것도 재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파도는 높이, 성난 것처럼 위협하듯 우리를 향하

여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오면서 파도는 가라앉았고 웃으면서 바다로 돌아갑니다. 영광송이 우리 가족들의 휴가 중에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방학은 빠르게 지나고 새 학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신학교 강의가 시작되자 학교에는 영광송을 데리고 갈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네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신학교에서 하는 일은 날마다 하나님에 관하여 온종일 말하고, 하나님에 관하여 읽으며, 하나님에 관하여 글을 쓰면서 보내고 있지 않는가? 신학을 연구하는 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기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영광송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바울의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강의에 들어온 학생들은 바울의 서신서들 가운데서도 가장 무게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로마서의 논증들이 자주 영광송에 의해서 중단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첫 장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언급한 구절들 한가운데, 바울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의 꾸러미를 삼입해 넣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오셨건만 그를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서 아주 기다랗게 다룬 다음, 바울은 갑자기 그의 논증을 마치고서 다음과 같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러서 값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 번 반복해서 바울은 마치 자기 자신에게 무엇을 상기시키려는 듯이 그의 신학적인 논의의 흐름을 이렇게 영광송으로 깨뜨리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가를 올려드리는 영광송이 야말로 신학자가 해야 할 임무 중 가장 고유한 일임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말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인식할 수 있을 때,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선(善)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배는 신학적인 연구를 결코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학은 예배로부터 싹트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신학교 생활에 어떤 부수적인 것을 제공하기 위해 끼워 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들은 딸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 딸의 머리에 리본을 달지 않습니다. 딸이 예쁘기 때문에 머리에 리본을 달아 줍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의 삶에서 영광송은 가장 적절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우주 창조와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주제를 기록해야만 했던 바울은 누구였습니까? 바울은 그 자신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바로 그 은혜에 의해서 부름 받았고 세움 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인상적인 구속의 사랑에 대한 증거 중에서 진열품 1호로서 자신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저기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제 생각에는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우리 모두에게 영광송보다 더 적절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끈적한 카페의 테이블에서 혁명을 말하며 시간을 보내든지, 아니면 어느 조용한 교외에 위치한 집의 뜰에 별 생각 없이 조용히 앉아 있든지 간에, 영광송을 올려드리지 않아도 될 장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몇 년 전 독일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었을 때, 저는 친구들에게 이끌려 오스트리아의 쾰른부르크 부근에 있는 조그마한 호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곳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우리는 한 젊은 여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영국에서 온 줄리 레인(Julie Rayne)이었습니다. 주디 갈랜드와 같은 류의 가수였습니다. 그녀는 영국, 독일, 그리고 미국 노래를 번갈아 가며 불렀습니다. 그녀가 부른 노래 가운데는 한때 좋아했던 옛날 노래들도 있어서 저는 곧 그녀의 노래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부른 노래 가운데 곡조는 익숙하지 않았으나 가사는 나에게 너무나 익숙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편 121편에 나오는 가사였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도대체 이런 장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만일 연예인이 종교 분야로 들어가 종사하려고 한다면 그는 그 직업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줄리 래인을 만나고 싶다고 메모를 보냈더니 그녀는 시간을 내 주었습니다. 제가 물었던 것은 “왜?”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인기 있는 대중가요를 부르다가 갑자기 시편 121편 찬송을 부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대중가요 가수인 그녀에게는 어색하고, 이 장소에서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공연마다 찬양 곡을 하나씩 포함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제가 어떠한 사람이었고,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았다면,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 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당신이 알았다면, 제가 부르는 노래 중 시편 121편이 가장 적절한 노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가끔 신학생들 가운데는 학업을 포기하고 떠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일은 서서히 진행되다가 결과로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점점 그들의 열심이 식어지고, 믿음은 약해지며, 사역에 대한 갈망도 사라지고, 샘물이 메마르듯 영혼이 말라 버리며, 눈은 무디어지고 생기가 점점 사라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사단이 그들의 마음의 성을 공격하여 점령해 버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학업에 정진하다 보니 의심이 생겨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 이외에 다른 어떤 매혹적인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닙니

다. 어떠한 극적인 일이 일어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에 “관하여”(about) 말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with) 대화를 나누는 것을 적절하게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치명적인 잘못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영광송을 잃어버렸고, 결국 죽어 넘어진 것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러한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기에 부적절한 시기와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교에서 로마서 강의를 인도하고 있었을 때 큰 형님이 바로 전에 돌아가셨다는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심장 마비였다고 했습니다. 너무도 놀랍고 가슴 아픈 소식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잊어버리기 위해 분주하게 이것저것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했고, 아이들을 학교에서 조퇴시켰습니다. 강연 예약들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우유 배달, 신문 배달, 편지 배달 등도 다 중지시켰습니다. 집에 있는 개도 누가 돌봐 주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주일 아침에 있는 장년 성경공부반도 다른 분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차도 점검했습니다. 모든 식구가 차에 탔을 때, “필요한 것들과 옷가지들은 대충 다 챙긴 것 같아요.” 아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밤새도록 운전해서 두 주(州)를 건너 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창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대화도 끊기고 깊은 침묵 가운데 빠졌습니다. 형님 댁에 가까워지면서 가끔씩 말을 하다 보면 언제나 같은 말로 끝이 났습니다. 형님을 잃고 미망인이 된 형수에게 무슨 말을 제일 먼저 할 것인가? 우리는 그녀에게 할 말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가 형님집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도 적당

한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형수는 집밖으로 나와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차 문을 열고 나와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형수님이 침목을 깨뜨렸습니다.

“영광송은 데리고 왔나요?”

“영광송요?”

“아니오,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실상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은 후부터 한 번도 영광송을 생각해 본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 마음에 확실히 떠오르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광송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 폭풍 속에서 잠들다 (Asleep in the Storm)

막 4:34-41

오늘의 본문을 읽었을 때 저는 예수님께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떠올린다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나의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화랑(畫廊)에는 그분이 폭풍 속에서 잠들어 계시는 이미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를 상상하여 그분의 모습을 화폭에 담는다면, 밤새워 기도하시면서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체포되시던 그날 아침까지 겿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모습은 쉽게 그려집니다. 그러나 폭풍 이는 바다에서 잠들어 계신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분이 주무셔야만 했습니다. 모두가 잠을 자야 합니다. 결코 잠을 주무실 수 없는 겁 많은 예수님의 모습은 그려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야 하는 것처럼 그분도 주무셔야 합니다. 마치 주일날 아침까지도 잠을 자는 사람처럼 그분도 잠을 주무셔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그리고 싶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잠자는 것은 매우 개인적인 일입니다. 사생활, 수치심, 당혹감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취하는 가장 사적인 것으로 잠을 꼽습니다. 저는 그 말이 이해가 갑니다. 우리는